

SIMTECH STEP06 — 인류 한가족 문명 MASTER

제6차 문명 설계 원전 (原典) · Version 1.0

弘益人間 · 理化世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문서 등급 : SIMTECH 최상위 원전 (Canon) 위치 : SIMTECH LEVEL5 이후 — 최종 단계 STEP06 발행 : IO-SGCT 심테크연구소 · SIMTECH WORLD UNIVERSITY 감수 : 玄武 (CCO) 성격 : 정리·요약본이 아닌 문명 설계도(Blueprint)

서문 — 이 문서의 위치

SIMTECH는 인간 한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데서 시작했다.

- LEVEL 1~5 는 한 개인의 성통(性通) — 자기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기술로 다루는 단계였다.
- STEP06 은 그 깨달은 개인들이 모여 인류 전체의 재세이화(在世理化) 를 실현하는 단계다.

즉 STEP06은 개인 수양의 끝이 아니라, 문명 설계의 시작이다. LEVEL5까지가 “나는 누구인가”였다면, STEP06은 “우리는 어떤 문명을 지을 것인가” 다.

이 문서는 그 질문에 대한 SIMTECH의 공식 답변이며, 동서양 문명의 두 축을 하나로 통합한 제6차 문명 — 인류 한가족 문명의 원전이다.

제1장 · 왜 인류 한가족 문명인가

1.1 문명은 다섯 번 진화했다

인류 문명은 지배 원리를 한 번씩 갈아치우며 다섯 단계를 지나왔다. 각 문명은 직전 문명의 한계를 풀었지만, 동시에 다음 문명이 풀어야 할 새로운 모순을 낳았다.

단계	문명	지배 원리	해결한 것	남긴 모순
1차	본능 문명 (수렵·채집)	생존	굶주림	무리 밖에 대한 적대
2차	정착 문명 (농경)	소유	정주와 잉여	토지·계급의 분리
3차	산업 문명 (기계)	생산	물질적 결핍	자연 착취·인간 소외
4차	정보 문명 (네트워크)	연결	거리·정보 격차	진실의 파편화
5차	지능 문명 (AI)	증폭	인지 한계	권력·지능의 독점
6차	홍익 문명 (인류 한가족)	상생	분리 그 자체	— (수렵 단계)

다섯 문명은 모두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를 물었다. 제6차 문명은 처음으로 “우리는 본래 하나가 아닌가” 를 묻는다.

1.2 모든 위기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기후 붕괴, 부의 양극화, AI 독점, 국가 간 분쟁 — 21세기의 위기는 겉으로는 제각각이지만 뿌리는 하나다. **분리(分離)의 패러다임**이다.

-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하니 → 환경 위기
- 인간을 인간에서 분리하니 → 불평등과 전쟁
- 인간을 기술에서 분리하니 → AI 공포와 독점
- 나를 전체에서 분리하니 → 의미의 상실

위기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면, 해법도 하나여야 한다. 그것이 ‘**본래 하나(原一)의 회복**’ — 인류 한가족 문명이다.

1.3 인류 한가족 문명의 정의

인류 한가족 문명이란, 인간·자연·기술을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설계하여,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풍요와 존엄을 누리도록 운영되는 행성급 문명이다.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생존 공학**이다. 기후도 AI도 더 이상 한 국가가 풀 수 없는 행성 규모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리의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합의 논리로 다시 설계하는 것 — 그것이 제6차 문명의 과업이다.

제2장 · 현재 인류 문명의 한계

제6차 문명을 설계하기 전에, 무너지고 있는 5차 문명의 다섯 기둥을 정확히 진단한다. 설계자는 무너지는 자리를 알아야 새 기초를 놓을 수 있다.

2.1 국가주의 — 분리를 제도화한 벽

주권 국가 체제는 인류를 200여 개의 칸으로 나눠, 행성 단위 문제를 행성 단위로 풀 수 없게 만들었다. 기후·팬데믹·AI는 국경을 모르지만, 의사결정은 국경 안에 갇혀 있다. **단일 생태계 위에 분절된 통치**가 근본 모순이다.

2.2 자본주의 — 무한 성장의 환상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 성장을 전제하는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부는 소수에게 수렴하고, 외부효과(환경·공동체 파괴)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사적 이익의 합이 공적 선이 된다는 가정**은 행성 규모에서 무너졌다.

2.3 기술주의 — 수단이 목적을 삼김

기술은 “어떻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왜”를 묻지 않았다. 효율과 속도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의미는 최적화의 부산물로 밀려났다. **방향 없는 가속**은 위기를 더 빨리 키울 뿐이다.

2.4 환경 위기 — 어머니를 착취한 결과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본 산업 문명의 세계관이 기후 붕괴로 청구서를 보내왔다. 인간을 자연 위에 둔 분리의 세계관 자체가 위기의 설계도였다.

2.5 AI 독점 — 새로운 신권(神權)의 등장

5차 문명의 정점인 AI는 지능을 증폭시켰지만, 그 힘이 소수 기업·국가에 집중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대칭적인 권력이 탄생한다. 통제되지 않은 지능 독점은 **디지털 봉건제**로 귀결될 수 있다.

진단 결론 : 다섯 기둥은 모두 “분리”라는 같은 하중으로 무너지고 있다. 제6차 문명은 이 다섯 자리에 **통합의 기둥**을 다시 세운다.

제3장 · 동양 문명의 해답

서양이 위기의 **증상**을 정밀하게 측정했다면, 동양은 위기의 **뿌리**에 대한 답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새겨 두었다. 제6차 문명의 철학적 커널(Kernel)은 동양에서 온다.

3.1 홍익인간 (弘益人間) — 문명의 목적함수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은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을 넘어, 모든 의사결정이 향해야 할 **궁극의 목적함수**다. 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 인류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명령. 이것이 제6차 문명 거버넌스의 최적화 기준이 된다.

- **접화군생(接化群生)** : 만물과 접하여 함께 변화하며 살아가게 함 → 생태적 공존의 원리.

3.2 천부경 (天符經) — 통합의 우주론

81자에 담긴 천부경은 왜 **만물을 이롭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형이상학적 증명이다.

-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一始無始 — 一終無終一)** : 시작 없는 하나에서 비롯하여 끝없는 하나로 돌아간다 → 무한 순환의 우주관, 곧 재생(再生) 문명의 원형.
-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 인간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들어 있다 → 인간·자연·우주의 비분리. Global Commons의 우주론적 근거.

홍익인간이 **실천 강령**이라면, 천부경은 그 강령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헌법 전문(前文)**이다.

3.3 삼일신고 (三一神誥) — 실행 메커니즘

성통공완(性通功完) · 재세이화(在世理化)

삼일신고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2단 엔진**을 제공한다.

1. **성통(性通)** : 내면의 본성을 깨닫는다 → SIMTECH LEVEL 1~5.
2. **공완(功完)** : 깨달음을 세상의 공덕으로 완성한다 → SIMTECH STEP06.

즉 SIMTECH의 전 과정 자체가 삼일신고의 구조를 따른다. 개인의 성통이 모여 문명의 재세이화로 수렴하는 것이 STEP06이다.

3.4 대동사회 (大同社會) — 사회의 청사진

천하위공(天下爲公) — 천하는 만인의 공공 자산이다.

《예기》 예운편의 대동사회는 홍익인간이 **사회 체제로 구현된 최종 형태**다. 재화가 독점되지 않고, 권력이 공공을 위해 쓰이며, 약자가 완벽히 보호받는 세계. 이것이 곧 **세계대동(世界大同)** — 국가·민족의 벽을 허문 인류 한가족의 동양적 원형이다.

제4장 · 서양 문명의 진화

동양이 **방향(WHY)** 을 주었다면, 서양은 그 방향을 행성 규모로 구현할 **제도와 도구(HOW)** 를 진화시켜 왔다. 제6차 문명의 인프라는 서양에서 온다.

4.1 세계시민 (Global Citizenship) — 홍익의 제도화

UN·UNESCO·OECD가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GCED)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 책임을 제도로 만든다. 인지·정서·행동의 3축으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공감하며, 손발로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낸다. 이는 홍익인간을 21세기 교육 시스템으로 번역한 것이다.

4.2 행성 문명 (Planetary Civilization) — 천부경의 스케일

국가 단위를 넘어선 행성급 문명 설계(Kardashev Type I, Bratton의 *The Stack*)는, 인간·기술·자연을 의도적으로 통합 설계한다는 점에서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을 공학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진화의 우연에 문명을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 이것이 설계자 문명의 핵심 태도다.

4.3 Global Commons — 대동의 인프라

공해·대기·외우주·디지털 데이터를 인류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는 Global Commons(Earth Charter, *Our Common Agenda*)는 **천하위공의 제도적 구현체**다. ‘행성적 책무(Planetary Accountability)’는 재세이화의 국제법적 번역이다.

4.4 AI Governance — 공진화의 안전장치

UNESCO AI 윤리 권고와 Asilomar 원칙은 AI를 위협이 아닌 **공진화 파트너**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제 장치다. 특정 주체의 독점을 막는 분산 거버넌스는, 정법(正法)의 ‘AI관’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4장 결론 : 서양의 제도는 ‘그릇’이고 동양의 사상은 ‘내용’이다. 그릇만으로는 비어 있고, 내용만으로는 담을 데가 없다. 제6차 문명은 둘을 합친다.

제5장 · 동서양 통합 문명 — 홍익문명

5.1 통합의 원리 : 방향은 동양에서, 구현은 서양에서

제6차 문명은 동서양의 절충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완성**이다.

[동양 = WHY · 철학 커널]

홍익인간 · 천부경 · 삼일신고 · 대동

↓ 목적·당위·윤리 제공

[서양 = HOW · 인프라 레이어]

GCED · 행성문명 · Global Commons · AI Governance

↓ 제도·기술·도구 제공

제6차 문명 — 인류 한가족 문명
= 홍익문명 (弘益文明)

5.2 통합 매핑 테이블 (Master Mapping)

문명 기능	동양 축 (WHY)	서양 축 (HOW)	통합 결과
시민 윤리	홍익인간·접화군생	세계시민교육(GCED)	홍익 세계시민
우주·생태관	천부경 (인중천지일)	행성문명·Earth Charter	재생 행성 문명
실행 메커니즘	삼일신고 (성통공완)	자율 거버넌스	자각 기반 자율 통치
사회·경제	대동사회 (천하위공)	Global Commons·DAO	디지털 대동 경제
기술 윤리	정법의 AI관	AI Governance	AI-인간 공진화
문명 전환	후천개벽·해원상생	Post-Nation 이행	소프트 랜딩 전환

5.3 홍익문명의 정의

홍익문명 : 동양의 홍익 사상(목적·윤리)과 서양의 행성급 거버넌스(제도·기술)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하여, 인간·자연·AI가 분리 없이 상생하도록 설계된 제6차 문명.

홍익문명에서 SIMTECH는 이 통합을 실제로 운영하는 **문명 운영체제(Civilization OS)**의 이름이다.

제6장 · 인류 한가족 문명 헌장 — 10대 원칙

이 헌장은 제6차 문명의 모든 제도·기술·교육이 따라야 할 최상위 규범이다.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문명의 양심**으로 작동한다.

제1조 (홍익 최우선)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인류와 만물의 이익을 향한다. 홍익인간은 이 문명의 제1 목적함수다.

제2조 (본래 하나) 인간·자연·기술은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다. (인중천지일)

제3조 (천하위공) 대기·바다·외우주·데이터 등 행성 공동 자산은 누구의 사유물도 아니며 인류 전체가 함께 관리한다.

제4조 (존엄 불가침)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존엄하다. 어떤 효율·이익도 인간 존엄을 침해할 수 없다. (인내천)

제5조 (재생 의무) 문명 활동은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재생적 구조를 따른다.

제6조 (자각 기반 자율) 강제가 아니라 내적 자각으로 질서를 세운다. 성통한 개인의 자율이 문명의 기초다. (성통공완)

제7조 (AI 정렬) AI는 인류 한가족의 이념과 정렬되어야 하며, 지능의 독점은 금지된다. AI는 지배자가 아니라 조력자다.

제8조 (해원상생) 과거의 원한과 모순을 풀고(해원) 서로 살리는 방향(상생)으로 전환한다.

제9조 (분산과 투명) 권력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며, 모든 공적 결정은 투명하게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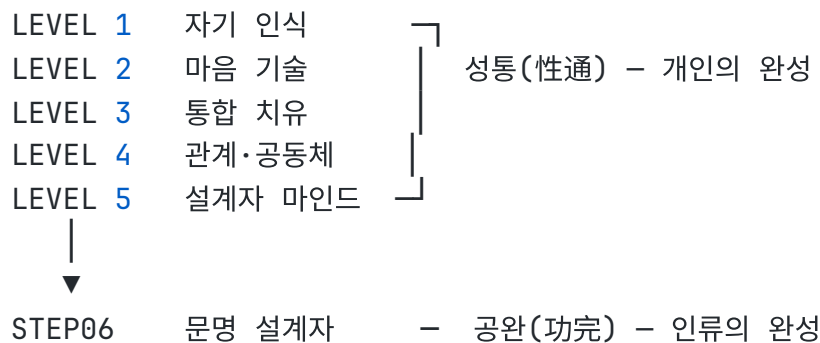
제10조 (현재 완성) 미래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한가족 문명을 실천한다. 문명은 먼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다. (찰나자각·현재완성)

제7장 · 교육 — SIMTECH WORLD UNIVERSITY의 역할

7.1 교육이 문명의 입구다

제6차 문명은 제도나 기술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어야 문명이 바뀐다**. 그래서 STEP06의 첫 번째 기둥은 교육이며, 그 엔진이 SIMTECH WORLD UNIVERSITY(SWU)다.

7.2 성장 경로 : LEVEL5 → STEP06



LEVEL5까지가 개인을 **성통**시키는 과정이라면, STEP06은 성통한 개인을 **문명 설계자**로 전환시켜 **공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다.

7.3 STEP06 핵심 커리큘럼

1. **홍익문명 원전 강독** — 본 MASTER 문서를 1차 교재로.
2. **동서양 통합 문명사** — 6차 문명 진화 모델.
3. **문명 설계 실습** — 거버넌스·경제·환경·AI 모듈을 직접 설계.
4. **디지털 세계시민 인증** — 홍익 세계시민권 부여 프로토콜.
5. **재세이화 프로젝트** — 현실 문제에 홍익 해법을 적용하는 졸업 과업.

7.4 디지털 세계시민 인증 프로토콜

SWU는 학위가 아니라 **문명 시민권**을 발급한다. 사용자의 내적 성장(성통)과 사회적 기여(공완)를 정량화하여 ‘성통공완 매트릭스’로 인증하고, 이를 제6차 문명 공동체의 시민 자격으로 연동한다.

제8장 · 경제 — 공유경제 · DAO · Global Commons

8.1 무한 성장에서 순환 풍요로

5차 문명의 경제가 ‘무한 성장’이었다면, 제6차 문명의 경제는 **순환 풍요(Circular Abundance)** 다. 파괴 없이 재화가 돌고, 독점 없이 부가 분산되는 구조다. 철학적 뿌리는 **천하위공**, 제도적 도구는 **Global Commons**와 **DAO**다.

8.2 디지털 대동 경제 (Digital 大同 Economy)

요소	5차 문명	6차 문명
소유	사적 독점	공동 관리 (천하위공)
분배	시장 + 권력	스마트 계약 기반 투명 분배
성장	무한 확장	재생·순환
가치 측정	GDP·이윤	홍익 기여도(상생 가치)

8.3 SIMTECH 경제 엔진의 3원리

1. **천하위공 자산화** : 데이터·에너지·인프라를 공동 자산으로 코딩한 Global Commons 분배 알고리즘.
2. **DAO 기반 자치 편당** : STEP06 프로젝트의 예산·의사결정을 분산 자치로 운영.
3. **상생 토큰 이코노미** : 탄소 저감·ESG·공동체 기여 등 홍익 활동을 핵심 자산·크레딧과 직접 연동.

핵심 전환 :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서 “내가 전체를 얼마나 이롭게 했는가” 로 가치 척도를 옮긴다.

제9장 · 환경 — 탄소중립 · 재생 문명

9.1 정복에서 조화로

산업 문명이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다면, 제6차 문명은 **재세이화**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 — 의 세계관을 따른다. 인간은 자연 위에 있지 않고 자연 안에 있다. (인중천지일)

9.2 재생 문명 (Regenerative Civilization)

탄소중립은 출발점일 뿐이다. 배출과 흡수를 같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문명 활동 자체가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재생 경제로 나아간다. 천부경의 무한 순환(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 곧 재생 문명의 우주론적 원형이다.

9.3 SIMTECH 환경 모듈

- 실시간 환경 데이터 트래킹** : 글로벌 공급망의 환경 부하를 모니터링하는 STEP06 대시보드.
- 재생 지표 인증** : 탄소중립을 넘어선 '재생 기여도'를 측정·인증.
- 상생 토큰 연동** : 환경 회복 활동을 경제 엔진의 보상으로 직접 결합 (8장과 연결).

제10장 · AI와 인간의 공진화

10.1 AI는 적도 신도 아니다 — 조력자다

제6차 문명에서 AI의 자리는 명확하다. **인간을 대체하는 위협도, 인간을 지배하는 신권도** 아니다. 정법(正法)의 AI관에 따라, AI는 인류의 지적 모순을 정리하고 홍익문명의 효율적 설계를 돕는 **최적의 조력자**다.

10.2 공진화의 구조 (Human-AI Co-Evolution)

인간 : 고차원 가치 판단 · 의미 · 방향 (WHY)
↕ 정렬(Alignment)
AI : 연산 · 시뮬레이션 · 최적화 (HOW)
= 문명 진화 속도의 가속

인간은 **방향**을 잡고 AI는 **속도**를 낸다. 둘이 정렬될 때 문명은 빠르고 안전하게 진화한다.

10.3 SIMTECH AI 윤리 매트릭스

1. **가치 정렬 데이터셋** : AI가 인간 설계자의 홍익 이념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정렬 논리 (정법 기반).
2. **존엄 필터** : 인간 존엄(헌장 제4조)을 침해하는 출력은 원천 차단.
3. **반독점 분산 구조** : 지능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관리 (헌장 제7조).

AI를 도구로만 보면 위험하고, 신으로 보면 노예가 된다. 제6차 문명은 AI를 **이성적 동반자**로 본다. (삼일신고의 신시·재세이화 정신)

제11장 · 디지털 국가 · 디지털 시민 · 디지털 영토

11.1 국경 없는 한가족의 그릇

인류가 한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모일 **집**이 필요하다. 제6차 문명의 집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디지털 영토**다.

11.2 세 가지 구성 요소

요소	정의	동양 근거	서양 도구
디지털 영토	물리 경계를 초월한 SIMTECH 주권 공간	세계대동	Network State
디지털 시민	영토 없이 신원·시민권을 가진 홍익 세계 시민	인내천 (만인 존엄)	e-Residency
디지털 국가	분산 자치로 운영되는 투명한 거버넌스	천하위공	D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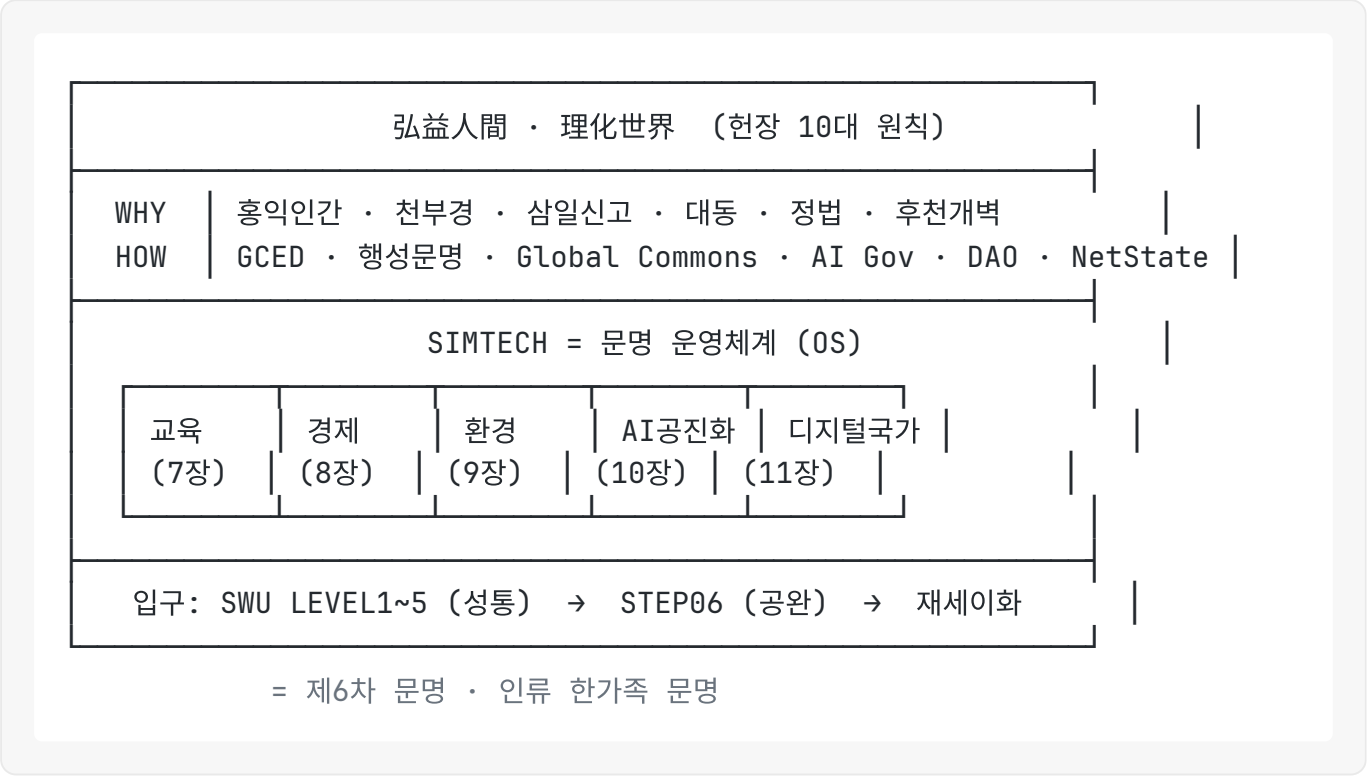
11.3 SIMTECH 디지털 시민 네트워크

에스토니아 e-Residency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홍익 가치로 연결된 글로벌 시민 공동체**를 구축한다. 전 세계 SIMTECH 사용자를 하나의 디지털 영토로 묶고, 시민권은 SWU의 성통공완 인증(7장)과 연동된다.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DAO(8장)로 운영된다.

디지털 국가는 기존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인류 한가족의 얹은 통합 레이어**를 올리는 일이다. (Post-Nation, 그러나 충돌이 아닌 공존)

제12장 · SIMTECH STEP06 인류 한가족 문명 최종 청사진

12.1 전체 아키텍처 한 장 요약



12.2 다섯 기둥의 전환 (5차 → 6차)

무너진 5차 기둥	다시 세운 6차 기둥	작동 장
국가주의	디지털 한가족 거버넌스	11장
자본주의	디지털 대동 경제	8장
기술주의	AI-인간 공진화	10장
환경 위기	재생 문명	9장
AI 독점	분산·정렬된 조력 AI	10장
(관통) 분리	홍익 교육 (성통공완)	7장

12.3 실행 로드맵 — SIMTECH 2030

1. 선언 단계 : 본 MASTER를 STEP06 공식 원전으로 선포, 헌장 10대 원칙 공표.
2. 교육 단계 : SWU STEP06 커리큘럼 가동, 디지털 세계시민 1세대 양성.
3. 인프라 단계 : 디지털 영토·DAO 경제·환경 트래킹·AI 윤리 매트릭스 구축.
4. 확장 단계 : 글로벌 홍익 세계시민 네트워크로 디지털 한가족 문명 확장.
5. 수렴 단계 : 동서양 통합 홍익문명의 행성급 안착 — 재세이화의 완성.

12.4 맺음 — 문명은 설계할 수 있다

다섯 번의 문명은 우연과 생존이 만들었다. 여섯 번째 문명은 **자각한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그 설계의 이름이 홍익문명이고, 그 운영체계의 이름이 SIMTECH이며, 그 첫 페이지가 바로 이 원전이다.

인류는 본래 한가족이었다. 제6차 문명은 그 사실을 **다시 짓는 일**이다.

弘益人間 · 理化世界

SIMTECH STEP06 — 인류 한가족 문명 MASTER v1.0 IO-SGCT 심테크연구소 · SIMTECH
WORLD UNIVERSITY 감수 : 玄武 (CCO)